

세계의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과 우리의 대응책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 이대로 둘 것인가?



모 인 필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다시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 조류뿐만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있어서 겨울로 접어드는 지금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는 계절이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낮은 온도 등 외부환경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2003년에 국내에 발생하였던 고병원성 AI도 바로 11월에 시작을 하여 12월 초에 검색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다시 AI 발생적기에 온 만큼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과거 1996년에 저병원성 AI(H9N2)가 처음 발생하였을 때 국내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가능성이 제기 되었고 2001년 중국산 가금육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을 때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검역과 국내방역 강화계획이 제시되었지만 결국은 국내에 유입이 되어 2003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고 말았다. 그동안 누누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고병원성 AI의 발생 가능성을 강조하였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의 검역과 방역 시스템은 이번에도 조기발견을 하지 못했다.

이제 고병원성 AI는 이제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조류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도 매우 중요한 전염성 질병이기 때문에 과거 양계 산업만을 고려하여 방역 정책을 추진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가 되어 버렸다. 따라서 다시 국내에서 발생을 하여 만연된다면 어쩌면 우리 양계산업은 우리의 뜻과는 관계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겨두고 방역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AI는 이제 일부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 질병이기 때문에 지역과 각 나라의 사정을 감안하여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AI의 발생형태에 따라 지역적으로 분류하면,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지역,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전파경로가 파악된 적은 없지만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은 기본적으로 철새 등과 같은 야생조류를 의심하고 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은 무역 혹은 사람의 이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은 동일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감염이 있는 후 변이에 의하여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로 전환이 되었지만 아시아지역은 그야 말로 느닷없이 고병원성 AI가 발생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나라별로 지역별로 다르게 수립이 되어야 한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와 혈청학적으로 구별이 되지 않는 저병원성 AI 바이러스도 박멸을 해야 하는 멕시코,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는 사실 살처분 정책이 당연한 선택이겠지만 질병의 특성상 만연되어있는 저병원성 AI를 박멸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백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다. 물론 국가에서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과 저병원성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도 작용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백신접종을 함으로써 일단은 고병원성 AI의 발생은 쉽게 종식을 시켰지만 임상 증상 없이 조용히 계군 간 전파되는 현상은 막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멕시코의 경우 9년간 백신을 사용함으로써 최초의 AI 바이러스에 계속적으로 변이가 일어나 이제는 현재의 백신으로 방어가 되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거 비공식적으로 백신이 사용됨으로써 중국 내 바이러스가 다양하게 변이를 일으켜 '03~'04년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대유행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같은 혈청형이면서도 동남

아시아와 한국 및 일본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다른 점도 이 같은 이유일 것이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쉽게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특성이 있지만 이와 같이 백신접종을 한 상태에서는 이 바이러스들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변이를 해야 하는 것이다. 백신접종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동남아 지역에서의 발생은 미주나 유럽과 달리 외부로부터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유입된 경우이다. 처음 검색이 되었을 때는 살처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되어 모든 나라가 이를 택하였지만, 검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안 생각보다 감염범위가 넓어 최근에 와서는 백신접종이 일부 국가에서 허용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백신접종이 되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잠복을 하기 때문에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영원히 박멸할 수 없는 고질적인 질병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국제기구에서는 동남아 국가들이 모니터링 등 방역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람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사망을 함으로써 단순한 가금류의 경제적 피해 차원이 아닌 사람의 독감 대유행을 걱정하는 것이다.

이제 고병원성 AI는 세계인류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또한 고병원성 AI만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저병원성 AI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을 사망케 하여 세상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결막염 등 임상증상은 약하지만 훨씬 많은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물론 당장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방역측면에서 우려하는 것은 저병원성 AI 바이러스와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되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만들어져 사람 독감이 대유행이 된다는 것이다. 즉, 감염되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병원성 보다는 바이러스와의 접촉빈도에 따라 사람 독감 대유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저병원성 AI 바이러스에 접촉이 제일 많은 사람은 바로 양계농가와 관련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양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종할 것을 권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요약을 하면 이제 고병원성이든 저병원성이든 AI는 우리 양계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역도 양쪽을 모두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고 수행을 하여야 한다. 국가에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담당한다면 농장의 방역은 당연히 농장관계자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자신의 닭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여야 하고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생물테러의 최전선이 농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농장에서의 차단방역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어떠한 형태든 농장에서의 차단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각 농가에서 수립하여야 하며 남들이 너무 바보스럽다고 할 정도로 고지식하고 철두철미한 농장방역을 실천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양계**